제14강 호메로스의 『일리아드』Ⅲ-아킬레우스의 승리

(1교시)

◆ 아킬레우스의 재참전

▲ 배경

아킬레우스가 참전하지 않게 된 것을 알게 된 트로이아군이
아킬레우스 막사를 지나 그의 선단을 죽여도 아킬레우스는 참전하지 않는다.
그러자 헤라와 아테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전장에 뛰어들게 되는데,
인간의 싸움이 신의 싸움으로 번질 것을 두려워한 제우스는,
무지개의 신 이리스를 지켜서 어떤 신도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다.
이에 일방적인 열세인 그리스 연합군을 보다 못한,
아킬레우스와 절친했던 파트로클로스 (Patroclos)는
아킬레우스에게 투구와 갑옷을 빌려 출전하여 전사한다.

▷ 아킬레우스의 투구, 갑옷 : 테티스 여신이 결혼 선물로 헤파이스토스 신에게 받은 것.

▶ 잠의 신과 죽음의 신에게 들려가는 파트로클로스

www.artnstudy.com

▶ 헥토르에게 죽임을 당하는 파트로클로스

▶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거두어,
헥토르 시신을 가져온 뒤에 파트로클로스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약속한다.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분노는,
트로이아 전쟁에 재참전하게 되는 계기가 됨.

www.artnstudy.com

(2교시)

▲ 테티스 여신의 모정

갑옷과 투구 없이 전장에 나가려는 아킬레우스를 말리고,
테티스 여신은 제우스를 찾아가 자신의 아들에 내린 신탁을 거두어달라고 애원한다.

▶ 제우스에게 애원하는 테티스 여신

신탁이 거두어지지 않자,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가
아킬레우스를 위한 투구와 갑옷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다.
인간을 위한 맞춤 갑옷을 한번도 만든 적 없던 헤파이스토스도
테티스 여신의 부탁을 받아들여 아킬레우스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준다.

▷ **헤파이스토스가 테티스 여신의 부탁을 들어준 이유**

헤파이스토스
1. 헤라와 다툰 제우스 발길질에 천궁에서 떨어져 지상의 어떤 섬에 떨어져 불구가 됨.
2. 처녀생식이기에 이미 불완전한 존재. 태어날 때부터 일그러진 얼굴과 절름발이 다리.
   (가부장적 해석)
   헤라가 태어난 헤파이스토스를 바다에 던진다.
   던져진 헤파이스토스를 테티스 여신이 구해서 9년 동안 바닷속 동굴에서 키워줌.

헤파이스토스는 헤라 여신 생일에 아름다운 황금옥좌를 보낸다.
아름다운 의자에 앉는 순간, 헤라는 자동으로 손발이 결박됨.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를 데려와 풀어주고,
헤파이스토스는 헤라와 화해하고, 제우스에 의해 12 주신에 들어가게 된다.

www.artnstudy.com

▶ 헤파이스토스에게 새 갑옷과 투구를 부탁하는 테티스 여신

▶ 아킬레우스에게 새로운 갑옷과 투구를 갖다주는 테티스 여신

www.artnstudy.com

▲ 아킬레우스의 승리

아테나에 의해 헛된 희망을 품게 된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와 싸우기 위해 성문을 나가 결국 아킬레우스에게 죽임을 당함.

▶ 헥토르를 막는 안드로마케

▶ 헥토르의 시신을 끌고 가는 아킬레우스

피냄새에 굶주려서가 아닌, 상대의 사기를 죽이는 일종의 전술.
헥토르의 시신은 신의 도움으로 한군데도 상하지 않았다.

www.artnstudy.com